Seoul, ready to share with the world!

Seoul Environm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환경특별시' 서울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환경을 우선합니다.

CONTENTS

6 서울시 환경 현황
1_개요
2_역사

10 서울시 폐기물 관리정책
1_폐기물 관리의 총괄원칙
2_음식물쓰레기 감량화
3_자원회수시설 운영
4_도시광산프로젝트 SR센터
5_서울시 재활용정거장

18 서울시 대기질 개선정책
1_실시간 대기오염관리
2_친환경 녹색교통 정책
3_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4_동북아네트워크 구축

24 서울시 에너지 정책
1_'원전하나 줄이기' 정책
2_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3_태양광발전소 도입
4_집단에너지 사업
5_LED조명교체

30 서울시 물관리 정책
1_건강하고 맛있는 서울 수돗물
2_깨끗한 하수처리

34 서울시 자연성 회복
1_한강의 재탄생
2_난지도생태공원의 탄생
3_살아 숨 쉬는 청계천

39 견학시설 현황

서울 환경

서울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세계적인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한편 재활용과 에너지 효율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켜나가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물과 공기가 청정한 도시, 소음과 악취 없는 청결한 도시, 자원이 순환하는 저소비형 도시, 우수한 정책과 노하우를 나누는 공유 도시, 산책이 즐거운 걷기 좋은 도시, 시내 곳곳에 좋은 공원이 자리한 운치 있는 도시! 서울은 지금 '세계기후환경수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5 서울시 환경정책 주요사업 지표

미세먼지
38㎍/m³

중랑천 BOD
6ppm

생태경관
보전지역
1%

1인당
계획공원 면적
17.81m²

총예산대비
환경분야 예산
12.6%

Vision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서울

Strategy

1. 신뢰받는 생명자원공급
2. 안락한 생활터전 조성
3. 생동감 있는 자연환경 조성
4. 건강한 토지자원의 보전과 유지
5. 지구환경 보전에의 선도적 참여
6. 미래를 대비하는 환경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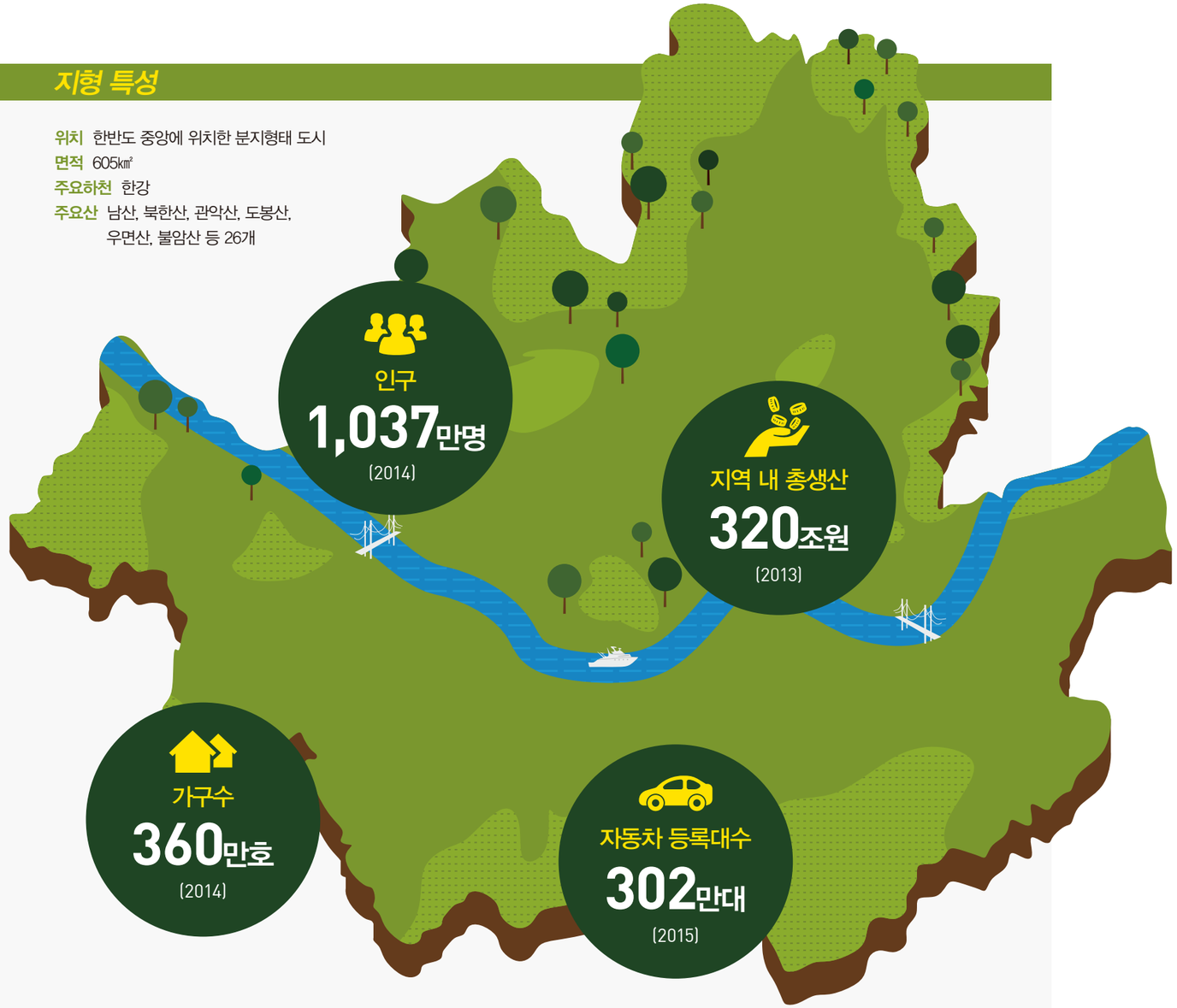
Goal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지구환경의 보전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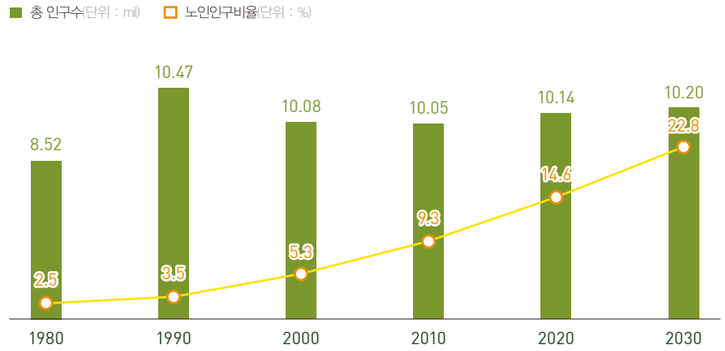
01 Overview of Seoul

지형 특성

위치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분지형태 도시
면적 605㎢
주요하천 한강
주요산 남산,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우면산, 불암산 등 2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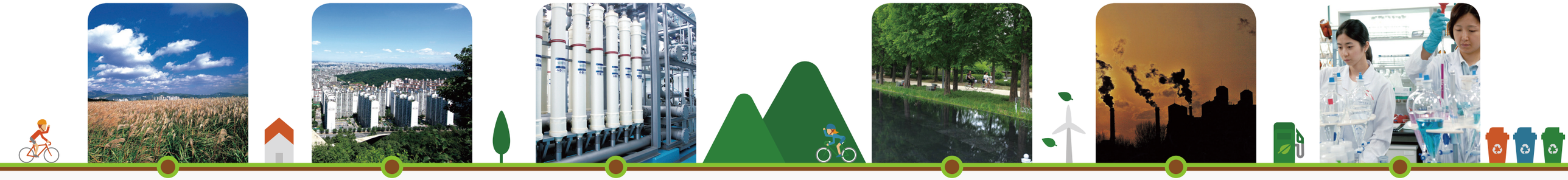
서울시 인구추이



주요 사업 및 지표

핵심전략	사업	지표	
		항목	2015년
신뢰받는 생명자원 공급	• 자동차 배출가스 특화 관리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제정	미세먼지(㎍/㎥)	38 (동경 40)
	• 수돗물 공급체계의 네트워크화 • 고도 정수처리시스템 도입	유수율(%)	91
	• 지천 유지용수 확보 • 수생식물 서식 여건 조성	중랑천 BOD(ppm)	6 (법기준 10)
안락한 생활터전 조성	• 적극적인 자원회수기반 구축 • 도로물청소 강화 및 구역 확대	열회수 대상량(%)	25 (공동이용달성)
	• 하수고도처리시설 단계적 도입 • 우수유출 저감 위한 관로 및 시설 개선	중랑물재생센터 방류수 BOD(ppm)	10 (강화된 방류수 기준)
	•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 유지 •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강화	사고발생율(%)	0
생동감 있는 자연환경 조성	•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지정 관리 • 단절된 녹지축 연결 • 자연형 하천 조성 지속 추진	생태경관보전지역(%)	0.83 (도시기본계획 2020. 1%)
	• 민간건물 조경 사후관리 강화 • 집 앞 5분 거리 공원 조성 • 공원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1인당 계획공원 면적(㎡)	16.91 (도시기본계획 2020. 17.81%)
건강한 토지자원의 보전과 유지	•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전담기구 설치 • 오염토양의 정화와 정화토양의 활용 • 지역별 불투수토양 포장면적 증가 규제	불투수 토양면적(%)	43
	• 폐공의 지속적 발굴 및 복구 •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추진 • 자연용출 지하수의 효과적 활용	자연용출 지하수 활용 (천㎥/일)	103 (지하철 역사 용출량 모두 활용)
지구환경 보전에의 선도적 참여	• 기업의 녹색구매 활성화 • ICLEI의 CCP 5단계 이행전략 실행 • 통합적 청정자동차 프로그램 운영	조달액 대비 녹색구매 (%)	10 (2015. 국가환경계획)
	• 중장기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 재생에너지 도입기반 마련 및 이용	신재생에너지/ 1차에너지(%)	5.0 (2011.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미래를 대비하는 환경행정	• 사전예방적 환경정책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정합성 확보	총예산대비 환경분야 예산(%)	12.6~13.5 (2006~2015)
	• 사업추진 시기 및 소요재원 확보 • 협력체계의 구축 및 모니터링 • 새롭게 그려보는 서울의 모습	–	–

02 History of Seoul Environment Policies



~1960's

1945년 광복, 1950년 한국전쟁,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 추진 등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낮은 수준의 환경정책 추진

1949 서울시 수도조례 제정

1950 도시복구와 위생유지 위해 공공청소사업 개시

1961 하수도관리 행정조직 조직 신설

1963 공원녹지분야 업무개시

1965 서울시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

1968 환경오염관리조직 신설

1970's

과학기술 발달과 산업화 진전으로 석유소비가 급증했으나, 석유파동을 겪으며 에너지 효율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고민 시작

1973 어린이대공원 개장
공원녹지분야 전담조직 신설

1974 구의정수장 가동

1976 중랑물재생센터 가동
(공공하수처리장시설 가동)

1978 난지도 매립 시작

1980's

급속한 도시화 · 산업화의 이면인 환경오염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

1981 서울시 청정연료정책 착수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정

1983 서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정

1986 한강시민공원 개원

1988 서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

1990's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관리 및 정책영역 세분화

1991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2 난지도 매립 종료

1993 수도권매립지 매립개시

1995 서울시 지하수 조례 제정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

1996 서울시 양천소각시설 가동

1996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제정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9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정

2000's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 속에 서울시 환경정책 영역에 에너지 및 기후변화 영역 추가

2002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서울시 에너지 조례 제정

2003 대기질 수도권광역관리 시작

2005 서울숲 개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2008 서울시 기후변화 조례 제정

2010's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정책에 주력

2002 한중일 국제 환경세미나 개최

2012 '원전하나 줄이기'에너지 살림 종합대책 발표

2012 기후환경본부 신설

2014 동북아 대기질 개선 위한 국제합의문 체결
'원전하나줄이기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대책 발표

2015 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개최

서울특별시의 폐기물 관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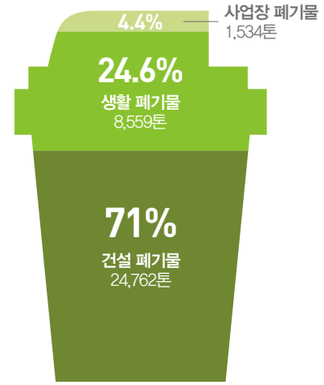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수준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혁신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관련 종사자와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재활용률 71% 달성, 음식물쓰레기 30% 감량, 매립량 제조화를 목표로 폐기물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01 폐기물 감량의 총괄적 원칙 '매립 최소화, 재활용 극대화'

서울시는 세계제일의 청결도시 · 자원순환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가 자치구 고유업무라는 시각을 버리고 폐기물 정책에 대한 광역시설 재정투자와 조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감량 문화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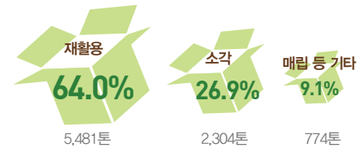
서울시 폐기물 발생 현황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 (2013년도 기준)



서울시 1일 폐기물발생량 합계
34,855톤(100%)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일 기준)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 추이 (단위 : 톤)

서울시 폐기물 정책의 네 가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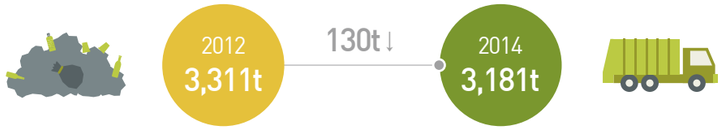
청소, 쓰레기처리 혁신원년	청소체계 패러다임 전환	쓰레기 자체처리 기반 조성	Waste Zero 청결도시 재활용 수도 구현
• 청결한 도시 조성 • 발생월별 재활용 확대 • 음식물종량제 정착	• 청소조직, 체계 개편 • 재활용 정거장 정착 •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 시행	• 폐기물 처리기반 확대 •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	• 재활용률 71% 달성 • 음식물쓰레기 30% 감량 • 생활폐기물 매립제로
2014	2015	2016	2020

0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노력 Zero Food Waste, Seoul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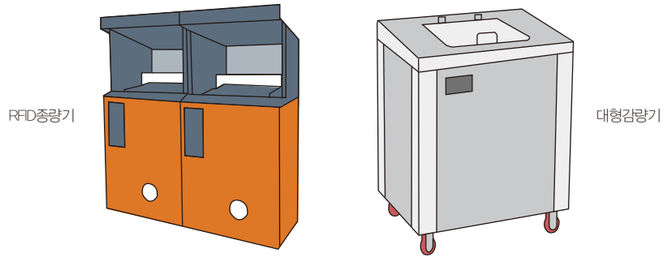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서울시는 갈수록 강화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규제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물재생센터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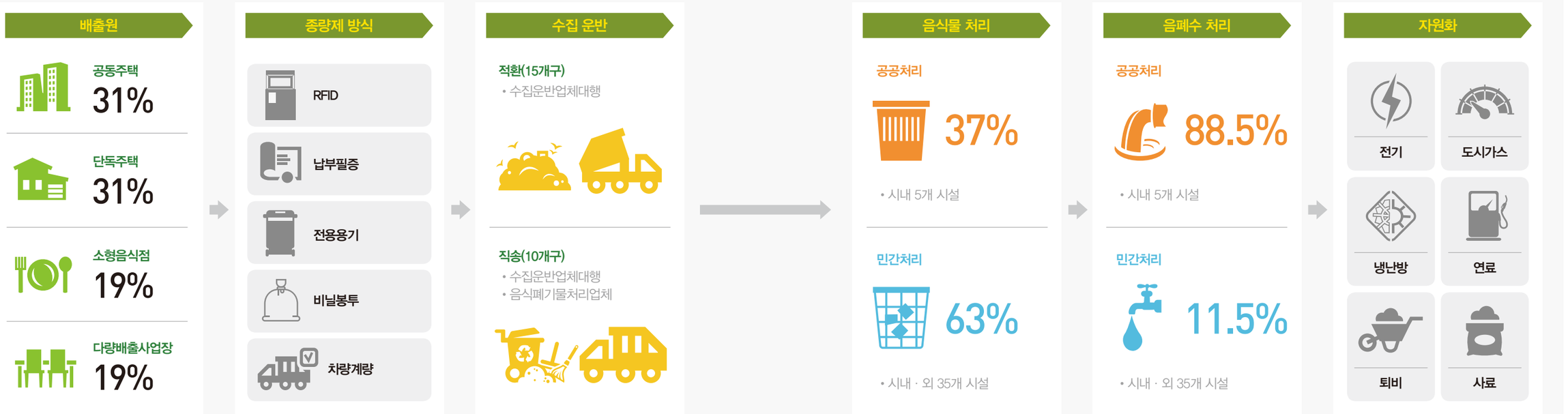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로 음식물쓰레기를 30% 가량 절감할 수 있는 RFID종량기와 80%까지 줄일 수 있는 대형 음식물감량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공동주택의 70%에 RFID종량기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감량률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 아직은 전면 도입이 어려운 대형 음식물감량기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품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가 적정한 성능의 대형감량기를 자율적으로 구입해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 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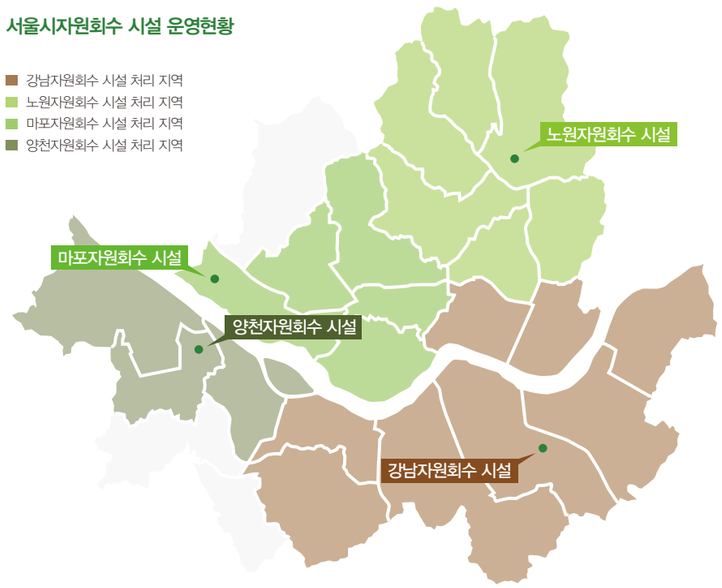


03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자원회수시설 운영

서울시는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와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자원회수시설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4개의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하루 2,85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으며, 연소 시 발생되는 고온의 폐열은 인근 주거지역 51만 8천 세대(2013년 기준)의 냉난방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분포 및 운영현황

서울시자원회수 시설 운영현황



구분	강남	노원	마포	양천
시설규모	900톤/일 (300톤/일×3기)	800톤/일 (400톤/일×2기)	750톤/일 (250톤/일×3기)	400톤/일 (200톤/일×2기)
준공	2001년 12월	1997년 1월	2005년 5월	1996년 2월
부지면적(㎡)	63,818	46,307	58,435	14,627
건설비(백만원)	101,080	74,279	166,547	31,815
폐기물 반입량(톤)	266,712	195,000	203,925	108,206
폐기물 소각량(톤)	266,074	199,254	204,245	106,628
전기생산량(kW)	40,189	29,008	35,431,253	12,995,400
전기판매량(kW)	전량 자체사용	전량 자체사용	12,584,012	4,427,964

※ 2013년 기준, 양천/마포는 열병합발전으로, 노원/마포는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함

신뢰높이는 시설 정보 공개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 반입 ·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열공급 시설, 대기오염 방지 시설(오염물질 제거 시설) 등 여러 공정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법정 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완벽히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배출된 오염물질의 상태는 환경부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을 통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되며, 측정된 자료는 전광판이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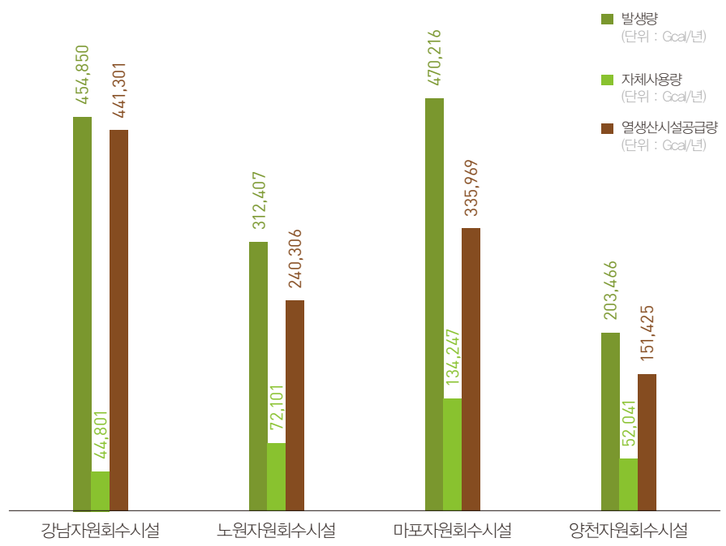
- 폐기물 반입 / 소각시설
- 폐열 보일러
- 열공급 시설
- 대기오염 방지시설

꼼꼼한 측정

- 실시간 공개
- 전광판 / 웹사이트

2014년 자원회수시설 폐열 이용 현황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폐기물 연소 시 폐열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열병합발전소로 보낸 뒤 증기터빈을 구동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일차적으로 시설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전기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4개 자원회수시설 가동으로 서울시 쓰레기 매립량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초기에 자원회수시설은 주민반대로 가동률이 매우 낮았지만, 서울시가 시설주변 지역주민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2001년부터 600여 차례)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열린 행정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신뢰성을 더욱 굳건히 확보해 갈 것입니다.

04 도시광산 프로젝트 이끄는 Seoul Resource Center

서울시는 각종 폐가전(소형 폐가전, 사무기기, 폐휴대전화 등)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도시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서울도시광산회수센터를 설립 · 운영하여 버려진 가전제품과 휴대전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을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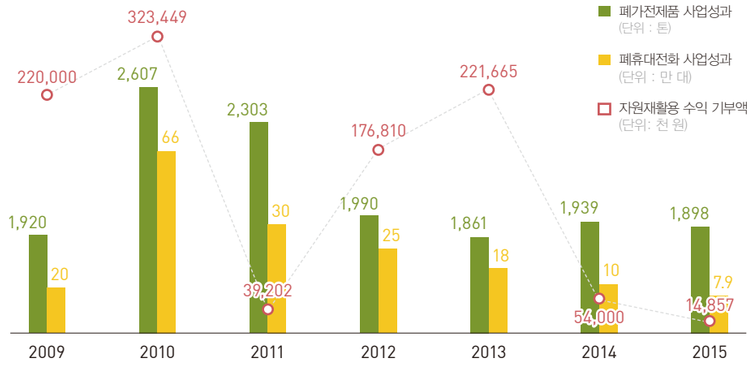
도시광산의 높은 효율성

- 금광 1톤에서 → Gold 5g
- 가전제품 1톤에서 → Gold 20g
- PC 1톤에서 → Gold 52g
- 휴대폰 1톤에서 → Gold 400g

소형 폐가전 수거 · 처리 흐름도

배출	수거	선별(재활용)	재질별 판매	사회환원
단독주택 (분리배출)	각 구청	SR센터 (선별 · 해체 재질별 분류)	고철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주택 (전용수거함)	집하 · 선별장		비철	
기업	에코시티 서울 (직접수거)		구리	복지기관에 기부
공공기관			플라스틱	
			PCB	

SR센터 사업성과



05 미래를 생각하는 정거장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재활용 분리배출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나 공공주택과 달리 주택가, 소규모 연립주택, 소규모 상가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활용품의 가치가 하락하고, 수거와 선별비용이 늘어납니다. 이에 주목한 서울시는 주택가, 소규모 연립주택, 소규모 상가 등에도 거점 수거 방식 배출체계를 도입하여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총 재활용 수거량 증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골목 청결도 향상 등 도시 미관 개선효과도 매우 컸습니다.

서울시 재활용정거장이 이룬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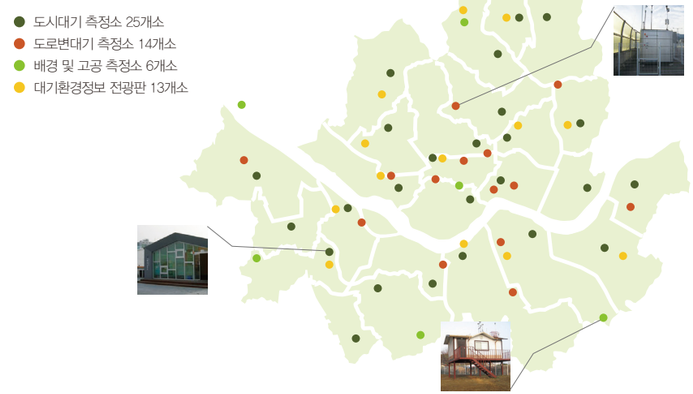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서울시는 시민이 건강하게 숨 쉬는 대기 환경을 만들고자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 20% 감축을 목표로 교통분야, 산업 · 비산업 분야, 생활오염 분야에 걸쳐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동북아 대기질 개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바 있으며, 현재는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집중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01 미리미리 예보하고,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서울시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실행과제로 대기오염 실태를 24시간 측정하고, 공개하고, 예보하는 작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 오존, 황사 등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도시대기 측정소, 도로변대기 측정소, 도시배경 측정소으로 이루어진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소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마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 (초)미세먼지 예 · 경보제, 오존경보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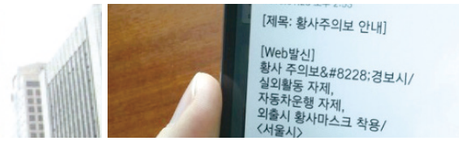
서울시 대기측정소 및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초)미세먼지 예 · 경보제

서울시는 호흡기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대기오염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 매일 4회(당일예보 2회, 익일예보 2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예보를 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주의보 · 경보시에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문자, 팩스, 트위터,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상황판,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공개



황사 예비주의 알림 서비스

오존 예 · 경보제

서울시는 1995년부터 오존경보제를 도입하여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예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존농도에 따라 오존경보를 발령하고, 시민행동 요령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02 대기오염 사전 예방의 주역 서울시 친환경 녹색교통 정책

초미세 먼지의 52%가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에 주목한 서울시는 녹색교통정책을 수립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통행량 30% 감축유도,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40% 달성,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00기 구축,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녹색교통 정책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녹색교통 핵심과제

차량관리
고품격 친환경 전기택시 도입, 전기/CNG 하이브리드버스 확대 보급, 승용차, 화물택배차 등 전기차 보급 촉진, 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 운행차 질소산화물 저감,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 저공해 의무조치 비대상 경유차 관리

LEZ 강화
서울상징 남산 대기청정지역 도입 및 LEZ 재설계, 수도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LEZ 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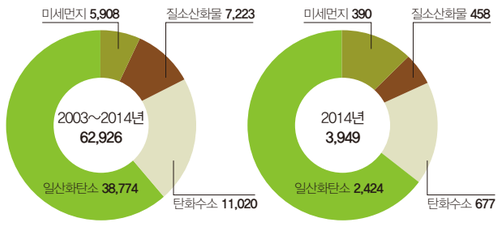
수요 관리
승용차요일제 개선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 승용차 구입 감축 및 녹색교통 수단 이용 확산

제도개선
제작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비도로오염원(건설기계) 관리, 지역관리기능 강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서울시는 2003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운행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현재 약 30만 대의 경유차량의 저공해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농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2014년에 실시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사업 결과 질소산화물은 평균 60% 감소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감소량



질소산화물 시범사업 배출가스 평균 저감률 (단위: %)

사업명 \ 배출가스	CO 저감률	NOx저감률	HC저감률 (PM저감률)
PM-NOx 동시저감장치	–	70	(80)
삼원촉매장치	70	70	60
건설기계 엔진교체	25	45	40(60)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매장량이 풍부한 천연가스를 이용한 자동차는 매연배출이 없고 질소산화물(NOx)도 경유자동차에 비해 64% 이상 적게 배출됩니다. 서울시는 대형경유차(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를 CNG로 교체하기 위하여 구입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시내버스 7,522대를 CNG버스로 100% 교체완료하였으며, CNG마을버스 1,119대, CNG청소차 525대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현재는 CNG버스보다 연비가 34.5% 향상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30% 적은 CNG하이브리드버스, CNG청소차를 보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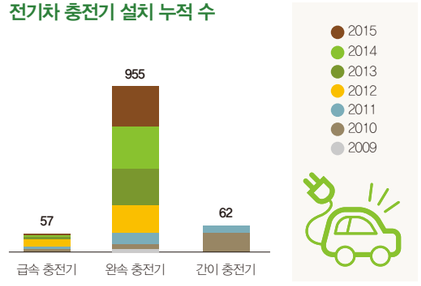
서울시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차종에 따라 배출가스 규제 항목 및 규제 기준을 설정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이, 경유 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연이 대상입니다. 시는 또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해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하여 관련 장치를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정차 시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 전역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에 해당되며, 특히 학교주변 등에 대해서 공회전 중점제한장소(2,663개소)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현황 (단위: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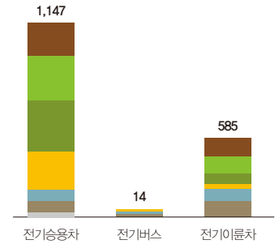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

2009년부터 선도적으로 그린카를 보급하고 있는 서울시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과 전기버스 개발 및 운영, 전기승용차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 등 전기차 보급을 선도해 온 서울시의 노력은 2012년 세계전기차협회로부터 '전기차 모범도시상' 수상을 계기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누적 수



친환경 그린카 보급 누적 수



03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의 전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

서울시는 2003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해 종전 배출량에 관계없이 농도만을 기준으로 삼아 규제하던 방식을 폐기하고, 각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할당량 삭감 및 총량초과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리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이며, 대상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총량 관리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서울시	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관리공단
• 배출업소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 • 측정기기 부착명령	• 총량 관리 및 배출량 확정 • 배출권거래제	• 총량관리센터 운영 (원격감시) • 배출량 확인 및 검증

배출허용총량제 강화방안

대상 사업장 확대

1~2종에서 4톤을 초과하는 3종 사업장 포함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강화해 배출허용총량 감축

- 선진기술 및 발전 전망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총량 감축
- 2018~2022년에는 현재보다 50%정도 강화된 기준 적용해 산정
- 배출량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단계적 유상할당 전환

- 해당 배출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최상의 저감시설 설치해 배출되는 농도까지는 무상으로 할당하되 그 이상 배출하는 농도에는 유상할당
- 신규 사업장은 배출권을 유상 구입하고 기존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는 불합리 해소 및 최고 수준의 방지시설 설치 유도

04 서울시가 선도하는 해외협력 동북아 대기질 개선 네트워크 구축

오염물질은 대기를 이동해 확산, 반응, 소멸하기 때문에 국경이 없이 이동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대기오염 저감대책만으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서울시는 주변 인접국가 및 도시와 협력하여 동북아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대기질 개선 포럼 개최

서울시는 2010년 개최한 한 · 중 · 일 환경전문가 및 공무원이 참가한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년 동북아 대기질 개선 포럼을 개최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개최일자	참가도시	주요내용
2010. 8. 26.	서울, 북경, 천친, 산둥성, 후쿠오카	도시별 대기질 개선 정책 공유
2011. 9. 29	서울, 인천, 북경, 내몽골, 상해, 홋카이도	대기질 개선 위한 협력 필요성 공유 공동선언문 발표
2013. 10. 17.	서울, 북경, 천친, 교토, 기타큐슈, 울란바토르	네트워크 구성 필요성 인식 서울시 대기질 개선 기술 · 정책소개
2014. 9. 24.	서울, 경기, 인천, 북경, 산둥성, 홍콩, 상해, 쓰촨성, 청두, 절강성, 도쿄, 기타큐슈, 울란바토르	전문가 포럼 진행 13개 도시 대표단 공동선언문 발표
2015.11.4	서울, 북경	양 도시 대기질 개선 정책 공유 북경시 환경보호국과 협력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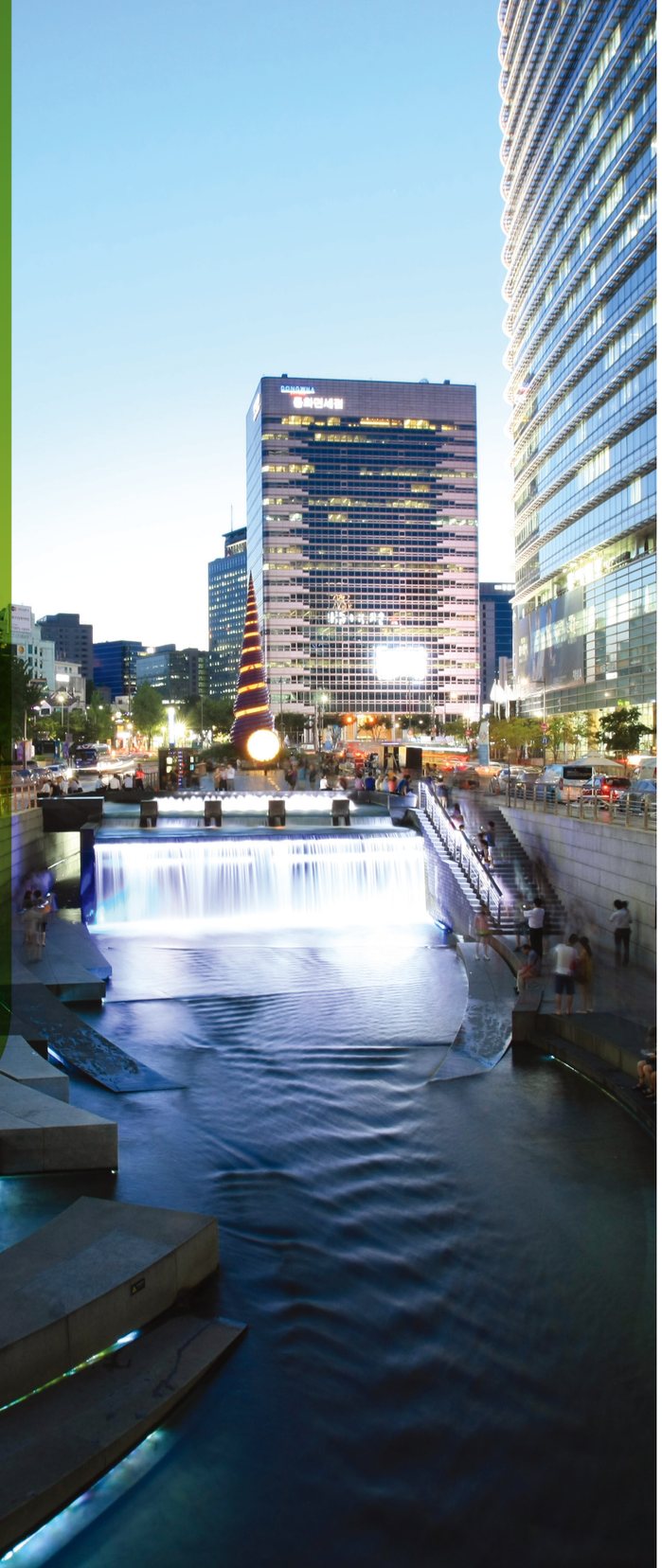
2014년 동북아 대기질 개선 위한 국제합의문 체결

서울시는 2014년 동북아 대기질 개선 포럼에 참여한 13개 도시와 '대기질 개선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공동합의문에는 단순히 도시간 협력 다짐에서 더 나아가 각 도시별로 구체적인 대기 오염 감축 목표와 이행 노력, 도시간 협력방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서울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발생원별 우선순위에 따른 저감사업 추진으로 2018년까지 PM-2.5 20% 감축
경기 2014년까지 PM-10 40㎍/m3, NO2 20ppb까지 감축
인천 대형배출업소 집중관리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15% 저감
베이징 2013~2017 청정공기행동계획으로 2017년까지 PM-2.5 25% 감축
쓰촨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대기오염 감축 노력
산동성 2020년까지 PM-2.5 50% 감축
홍콩 2020년까지 NOx 20%, VOC 15%, PM-10 15% 감축
상하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PM-2.5 20% 감축
청두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대기오염 감축 노력
절강성 6개 분야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PM-2.5 20% 감축
도쿄 2024년까지 모든 대기질 측정소에서 PM-2.5 연평균 15㎍/m3, 일평균 35㎍/m3까지 감축
기타큐슈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경을 넘어 도시 간 협력 추진
울란바타르 2018년까지 PM-2.5 10% 감축

서울특별시의 에너지 정책

소비는 많지만 자급률은 낮은 에너지 살림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라는 에너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4. 6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효율화구조 확대 및 소비절약 등을 통해 원전1기의 전력생산량에 해당하는 200만 TOE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을 2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1천만 톤을 감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에너지가 선순환되는 국제적 환경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01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살림 정책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시작

2014년 서울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약 10%를 소비했지만, 자급률은 4.7%에 불과하며,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 에너지 살림 정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2014년부터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서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살림도시' 비전도

서울시가 수립한 에너지종합대책은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항상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행동합니다.

시민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

에너지 자립 · 에너지 나눔 · 에너지 참여

제도화 + 시민 거버넌스
↓
소비구조 변화와 혁신

- 천만 서울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어 자립 선도
- 에너지 생산과 효율화가 일상화되어 시민 삶 속에 체화
- 에너지 산업 육성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에너지 참여자가 수익도 얻고 기부도 하는 선순환 구조 실현

400 총 에너지 생산 · 절감 **400만 TOE**

20 2020년까지 **전력 자립률 20% 달성**

1,000 온실가스 감축 **1,000만 톤 CO2/uiv.eq**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서울의 에너지, 서울이 해결합니다.

효율적 저소비 사회 구조
에너지 잘 쓰기도 실천합니다.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관련산업을 키우면 에너지도 커집니다.

따뜻한 에너지 나눔공동체
시민의 에너지, 시민과 나눕니다.

02 환경보호와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BRP)

서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56%는 건물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을 기획해 현재 초저금리 1.75%로 시민들에게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선도적으로 사업 참여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을 16% 절감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그린빌딩협의회로부터 '정부리더십상'을 수상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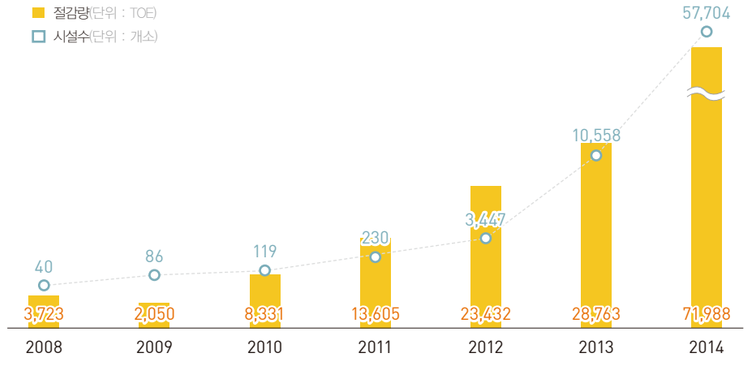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이란?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이란 각 건물에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 부문을 찾아내어 에너지 절약 시설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절감된 에너지 비용을 사업비로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BRP사업에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기금을 마련하여 초기 투자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RP전환 시 지원사항

분야	주택부문 (단독, 공동, 다가구 등)	건물부문 (대형빌딩, 중소형 건물 등)
융자 한도액	사업금액 100% 이내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최소 5백만원/ 최대 20억 원
대출금리	연리 1.75%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사업내용: 에너지 절약 시설 개선 설치 융자조건: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가능) 다가구주택의 경우 층별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합건물은 최대 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통해 지원 가능	

연도별 BRP 추진 실적



03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 햇빛도시 서울

서울시는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햇빛발전소를 서울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말 현재 10,069개소의 공공청사, 학교, 주택, 업무용 건물 옥상과 유휴부지 등에 101MW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성과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서울시 태양광발전시설 현황

합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학교시설	주택 (미니발전소)
101.2MW (100%)	41.4MW (41%)	32.1MW (32%)	12.1MW (12%)	15.6MW (15%)

햇빛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최초도입
100kW 이하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kWh당 100원씩 5년간 지원

서울시 햇빛지도 제작
시민들이 직접 발전설치 가능 여부를 가늠해보는 정보제공(http://solarmap.seoul.go.kr)

햇빛발전협동조합지원
2015년 기준 19개의 햇빛발전협동조합 활동
서울시는 매년 20개소 공공부지 지원 예정

태양광발전 사업자 융자 지원 및 사업허가 증대
- 설치비의 80%한도 최대 1억5천만원, 1.75% 대출금리
- 발전사업 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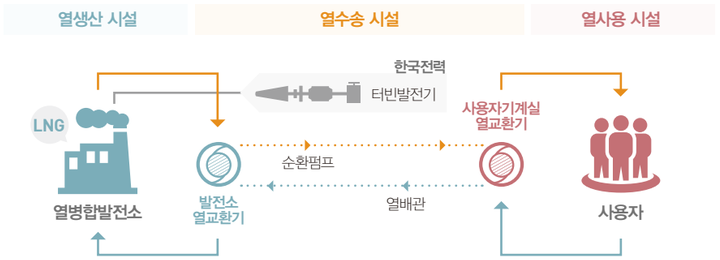
국내외 다른 도시와 전문 기술 공유

04 에너지 이용효율 높은 서울시 집단에너지 사업

집단에너지란

집단에너지란 한 도시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주택 및 건물에 난방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지역 차원에서 건설한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 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집중된 대규모 에너지 생산 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지역 전체의 난방 및 급탕을 위해 다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합리적 에너지 관리방식입니다.

집단에너지 지역난방 계통도



집단에너지 열원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

집단에너지 방식 지역난방 보급률
1987년 최초 공급 / 2014년말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35%로 확대 / 2020년까지 45% 확대 목표

소각 및 발전폐열 활용
서울 인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로부터 6만Gcal의 소각열과 부천 소재 열병합발전소의 잉여열 47만 Gcal를 각각 노원, 강서구 일대의 지역 난방 열원으로 활용

하수처리시설에 열병합 발전소 설치
서남, 난지물재생센터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설치

버려지는 하수를 열에너지로 활용
겨울에도 10℃ 이상을 유지하는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방류수의 남은 열을 자원으로 회수

서울 인근 지역 저가의 열 활용
집단에너지 열원확대를 위해 수도권지역 화력발전소의 발전배열을 광역 열배관을 설치, 연계 활용 / 지하철 차량기지 및 물재생센터의 연료전지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열 활용 / 자원회수시설의 굴뚝 배기가스 폐열회수사업도 실시

05 친환경 고효율 광원, LED조명교체로 에너지 절감 효과 극대화

반도체를 이용한 신 광원인 LED(Light Emitting Diode)는 기존 조명기기에 비해 최고 80%까지 전력 절감이 가능한 고효율 조명입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내 14만6,000개의 신호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고, 2010년에는 '서울 광원의 LED 교체 기본계획'을 발표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 조명 100%를 LED로 교체하고, 2030년까지 민간부문 80%를 LED로 교체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LED교체 조기달성을 위해 2014년 '공공조명 LED 교체 추진계획('18년까지 100% 교체)'을 수립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ED조명 교체 전담기구를 두는 등 적극적인 LED 조명교체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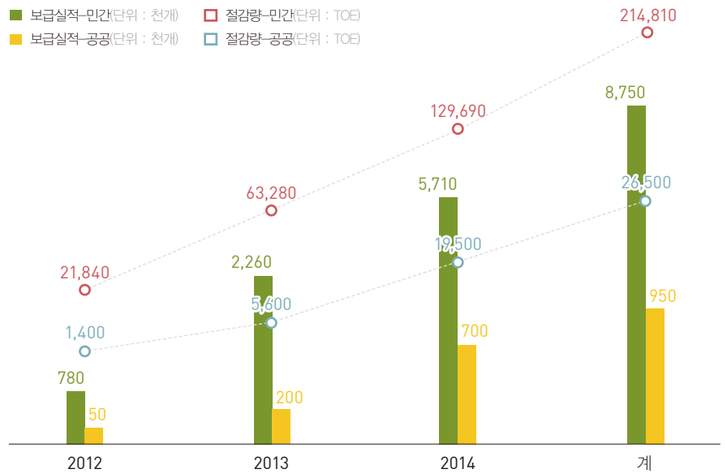
LED조명 교체로 얻은 서울시 에너지절감 효과

2014년까지 총 970만 개의 LED 조명 보급
서울시 31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절감하는 효과

지하철 역사 조명 90% 이상 교체
조명 소비량 45%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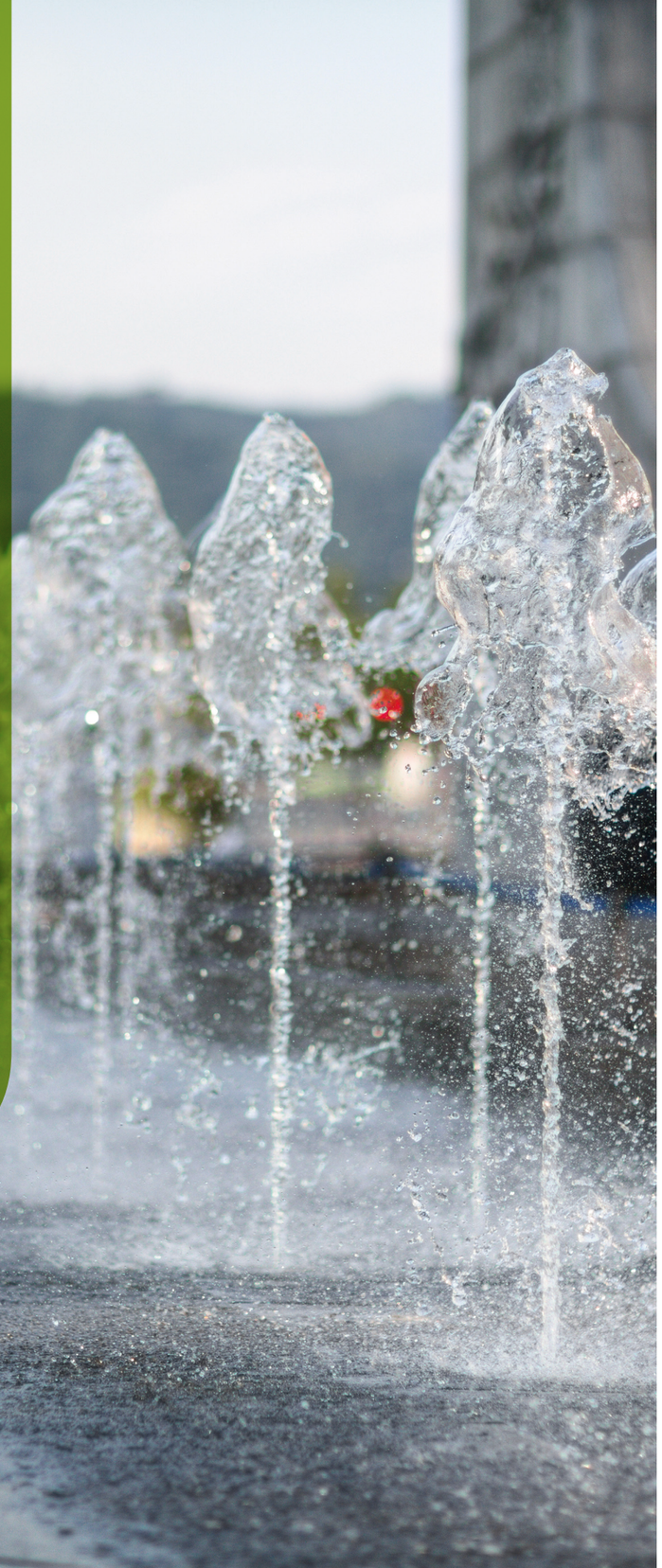
서울 시내 신호등 100% 교체
연간 약 4만 MWh/년의 전기 사용량 절감 효과
(서울시 평균 약 13만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

연도별 LED조명 보급실적 & 에너지 절감량



서울특별시의 물 관리 정책

서울시는 '사람 · 물 · 자연이 공생하는 건전한 물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수'라는 이름으로 1,000만 서울시민에게 공급되고 있는 서울의 수돗물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전시켜온 서울시 상수도 정책의 산물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이 하루 평균 500만 톤가량 배출하고 있는 하수, 분뇨, 음폐수는 역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4곳의 물재생센터에서 위생적인 공정과정을 거쳐 환경 친화적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서울의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엄격하고, 세심한 물 관리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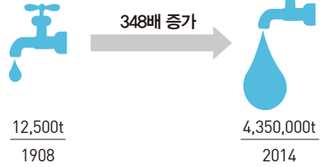


01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 수돗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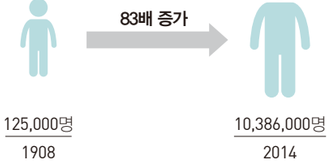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은 서울을 비롯한 1,8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으로 취수량은 하루 평균 799만 톤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정부 및 서울 인근 시 · 도와 함께 서울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개선사업, 한강환경감시단운영,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왔으며, 2004년부터 '아리수'라는 이름을 지어 타 도시의 수돗물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아리수는 2009년 유엔 공공행정서비스대상 수상, 2010년 글로벌 물산업혁신상 수상, 2010년 국제비즈니스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수상, 2012년 국제위생재단(NSF)품질인증 획득으로 세계적으로 그 품질과 명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하루 공급량

상수도 하루 공급량 변화



급수 인구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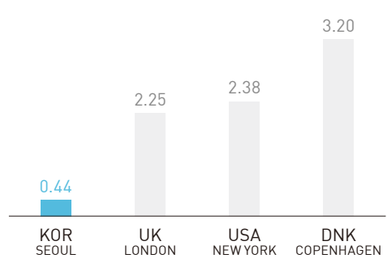


최고 수준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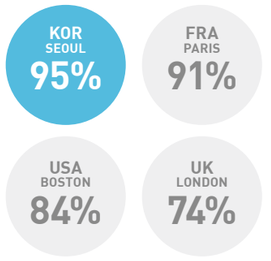
24시간 상수원 수질 감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설정
164개 항목의 정수 수질 검사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도입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운영	재염소 분산주입시스템 적용
24시간 무단수 비상 급수 가능한 대형 배수지 건설	
유수율 95.1% 달성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서울시 수돗물

세계 주요 도시 상수도 요금 (단위 :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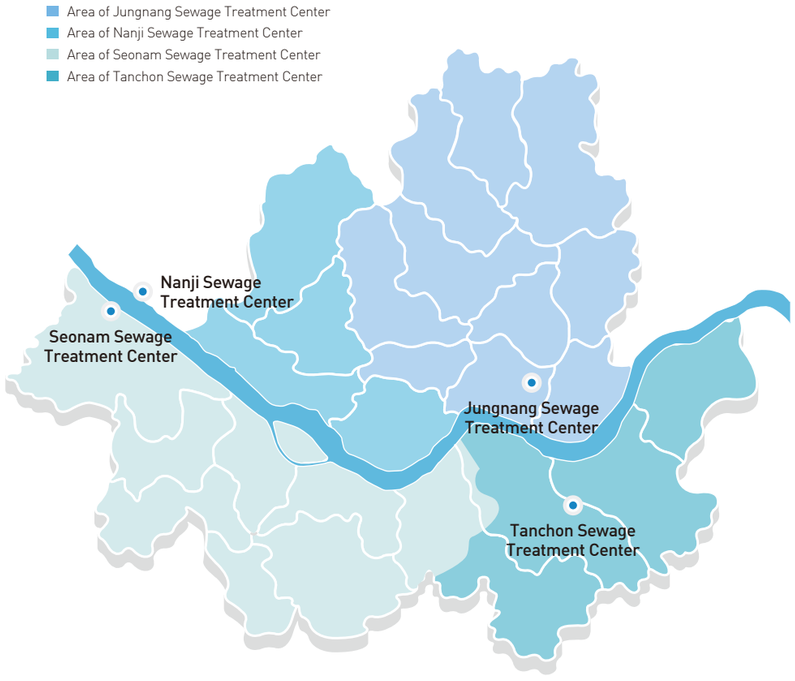
세계 주요 도시 유수율



02 깨끗한 하수 처리 서울시 물재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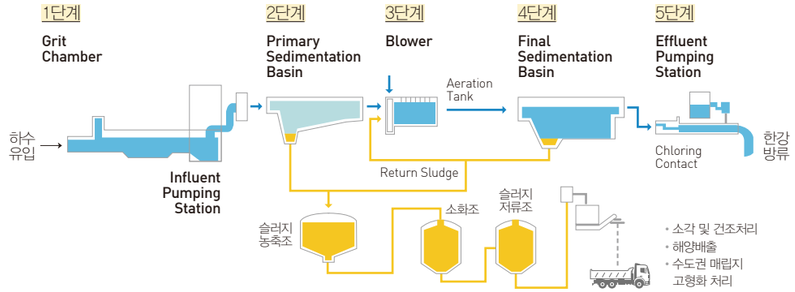
서울시는 서울시를 비롯한 인접 5개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하루 500만 톤에 이르는 하수와 분뇨, 그리고 음폐수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내에 4개의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수질개선과 건전한 수생태계 유지에 이바지 하고 있는 서울의 물재생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고도화된 하수처리시설과 주민 친화적인 센터운영으로 전국의 모범의 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현황



면적	인구	하수관거	하수처리율	하수처리량	처리수준
605.33㎢	1,038만명	10,392㎞	100%	하수 498만㎥/일 분뇨 10,500㎥/일 음폐수 900㎥/일	하수 BOD 130~170mg/L → 10mg/L 이하

서울시물재생센터 하수처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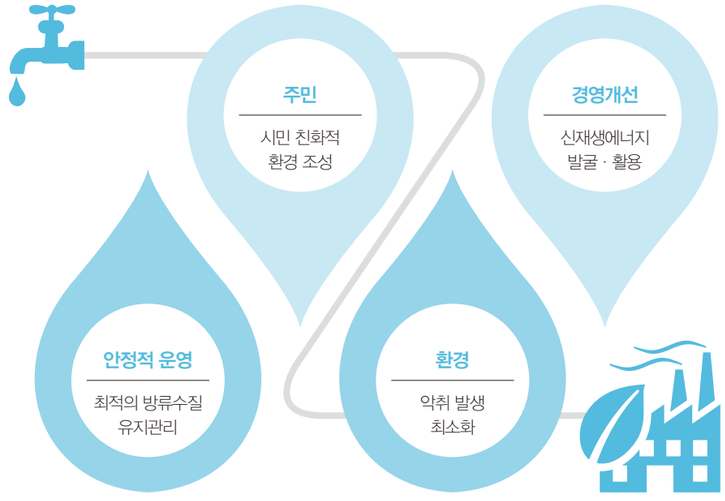
새로운 자원으로 되살아나는 하수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수처리공정을 방류수를 정화(BOD 3mg/L 이하)한 후 하천 상류로 보내 생태계 유지용수로 공급 / 보일러 냉각수, 소포수, 구내 청소수 등으로 사용하거나, 도로청소차량 급수, 지하철 차량기지 세차용수, 건축공사장 살수용 물로 공급

소화가스 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판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포집 · 정제하여 재생에너지로 활용
- 자체공정 활용 : 소화조 가온, 슬러지 건조시설 연료(LNG대체)로 활용
- 신재생 에너지 판매 : 발전용 가스, 가정용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연료로 판매

하수슬러지 재활용
하수슬러지를 탈수, 건조시켜, 시멘트원료,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판매

물재생센터의 건강한 약속



서울특별시의 자연성 회복

한국전쟁 이후 서울이 보여주었던 발전사는 '한강의 기적'으로 명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 발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효율과 기능에 주력했던 개발 과정에서 서울의 자연성과 역사성은 상실되어 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도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품격 높은 문화생태공간을 지닌 살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산에서 자연생태공원으로 변신한 난지도 매립지, 답답했던 복개를 걷어내고 청정하게 새 단장하여 매년 수천만 명이 즐겨 찾는 청계천, 대대적인 생태환경 복원과 문화 공간 배치로 서울의 랜드 마크가 된 한강 등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서울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01 개발 아이콘에서 생태 회복 상징으로! 한강의 재탄생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훼손된 한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돌리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나무를 심고, 생물서식처를 복구하자 떠났던 동식물이 돌아오고 있으며, 인접한 공원마다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자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한강 호안을 자연에 가깝게 복구하여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시민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수질을 개선했습니다. 생태,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한강은 지금 자연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민쉼터로 거듭난 한강

한강 수영장

달빛 무지개분수

플로팅아일랜드

전망문화Complex

물빛광장

생태습지원

자연호안으로 생태복원된 한강

콘크리트 인공호안

자연형 호안

성수대교 교량하부 숲 조성 모습 예시

02 죽음의 땅, 난지도 생태공원으로 거듭나다

급성장과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서울시는 1978년, 한강 하류에 조성된 범람원인 '난지도'를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하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매립해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흐른 1980년대에 이르러 난지도는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악취와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죽음의 땅으로 변모해갔습니다. 또한 주변 한강의 수질과 대기가 오염되고 가까운 지역의 생태계마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1991년부터 난지도를 되살리고 친환경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약 10여 년에 걸친 계획, 설계, 공사 끝에 난지도는 드디어 '월드컵공원'이라는 이름의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매년 약 3,000여 명의 국내외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공원으로 변화한 매립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월드컵공원은 2010년 3월, 'UN-HABITAT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쓰레기매립지 위에 조성된 월드컵공원 내 녹지

월드컵공원에 조성된 생태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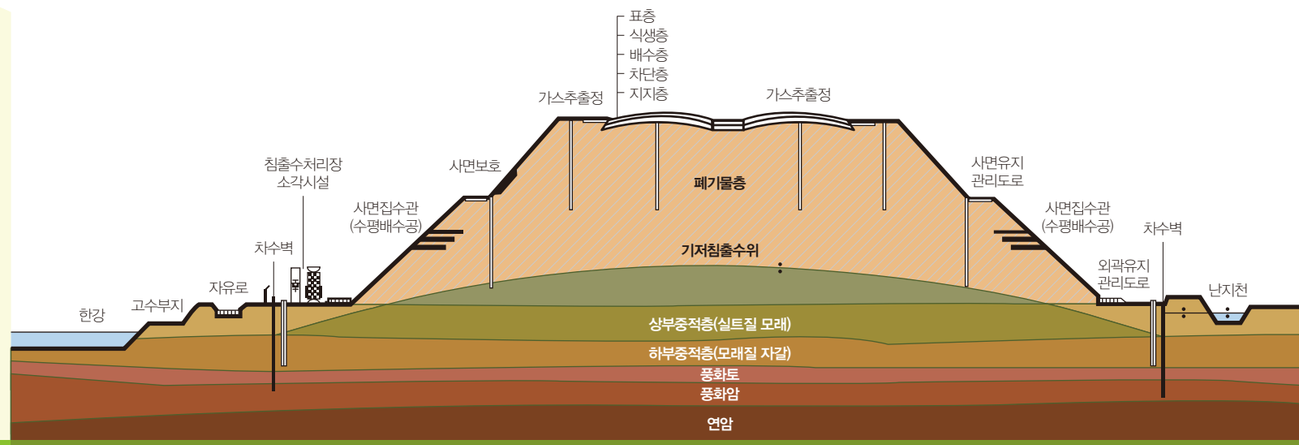
월드컵공원 조성 추진 경과

- **1993** 1993. 11.~1994. 12. 난지도 안정화대책 기본설계용역
- **1994**
- **1995** 1995. 4.~1996. 9. 난지도 안정화공사 실시설계용역
- **1996** 1996. 12. 난지도 안정화공사 착공
- **1997**
- **1998**
- **1999** 1999. 6.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계획 발표 – 월드컵공원(당시 밀레니엄공원) 포함
- **2000** 1999. 10. 월드컵공원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착수
- **2001** 1999. 12.~2000. 8. 하늘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12** 1999. 12.~2000. 9. 난지한강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00. 6.~10. 평화의공원 실시설계용역
- 1999. 12. 난지도의 환경 친화적 계획을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2000. 1.~2000. 6. 평화의공원 기본설계용역
- 2000. 3. 월드컵공원 기본계획위원회 발족
- 2000. 11.~2002. 4. 난지천공원 조성공사
- 2000. 12.~2002. 6. 하늘공원 조성공사
- 2000. 12.~2002. 5. 평화의공원 조성공사
- 2002. 2. 가칭 '밀레니엄공원'에서 '월드컵공원'으로 공원 명칭 결정 2002. 5. 월드컵공원 개원

월드컵공원은 난지천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의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다섯 개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그리고 캠핑장과 파크골프장 운영 등으로 연간 약 1,000만 명의 시민이 즐겨 찾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월드컵공원 조성 전인 2000년 서식하는 동 · 식물이 438종에 불과했던 난지도는 2013년 현재 총 1,092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난지도의 동 · 식물 개체종 증가(주요 분류군)

난지도 생태공원의 측면도



03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싱그럽게 살아 숨 쉬는 청계천

한강 수계에 속하는 청계천은 서울시 도심 내부를 흐르는 총 10.92km의 하천이지만,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부터 해방 이후인 1977년까지 구간별 복개공사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다른 용도로 쓰여 왔습니다. 이 때문에 복개 구조물과 노후한 고가도로의 안전문제는 서울시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계천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청계천을 뒤덮었던 청계고가 철거하고 원래모습인 개천으로 복원하는 한편, 다양한 수변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아울러 복개 당시 땅속에 파묻혔던 역사문화재를 되찾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청계천 복원작업으로 서울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으며, 생태지향적인 도시로 발전 전망을 열었습니다.

청계천의 변천사

1970's

청계천 주변 판자촌

1990's

고가도로가 놓인 청계천

2000's

청계천 복원공사 후

사진 : 노무라 모토유키

자연과 생태를 회복한 청계천

복원된 옛 문화재(광통교)

생태를 회복한 청계천

시민쉼터가 된 청계천

서울특별시 환경부문 우수정책 견학시설 현황

서울시는 환경정책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좋은 환경정책은 해외도시들과 공유하고자 환경부문 우수정책 견학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드림센터
에너지 자립도시의 꿈을 공유하는 에너지 종합체험 전시 공간
☎ 02)3151-0562 http://www.seouledc.or.kr

중랑물재생센터
하수 처리 과정 및 물재생 현장 체험
☎ 02)2211-2517 https://env.seoul.go.kr/archives/4892

서남물재생센터
물재생 종합홍보관 및 홍보영화 상영, 물재생센터 주요시설 현장견학
☎ 02)3660-2200 http://www.seonam.seoul.kr

마포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과정 견학 및 자원순환 과정 체험
☎ 02)302-0168 http://mrf.seoul.go.kr/main.jsp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의 정수처리 및 생산 과정 체험
☎ 02)3146-5600

청계천문화관
청계천 변천사, 복원공사 전후 도시 변화모습 전시, 다양한 주제 전시
☎ 02)2286-3410 http://cgcm.museum.seoul.kr

한강선상체험
한강의 생태, 문화, 역사, 개발현황에 대한 현장 체험
☎ 02)3780-0756 https://hangang.seoul.go.kr

서울시 환경정책 관련해서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Contact Information regarding Seoul Environment Policy
서울시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mail : policyshare@seoul.go.kr
Website : https://seoulsolution.k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ww.seoul.go.kr